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제1주일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제2주일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3주일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始祖) 아담과 하와가
낙원(樂園)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4주일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故意)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제2부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제5주일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義)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罪責)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6주일

16문: 중보자는 왜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갚을 치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갚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神性)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人性)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儀式)들로써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제7주일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恩德)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에 관하여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I.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II. 2.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3.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4.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5.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6.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7.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III. 8.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9.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10. 죄 사함과

11. 육신의 부활과

12.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8주일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聖化)에 관한
것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성자·성신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제9주일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써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함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애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애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10주일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써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제11주일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救主)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聖人)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의 하나만 사실입니다.

제12주일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救贖)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肢體)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13주일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救贖)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제14주일

35문: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使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人性)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제15주일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定罪)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16주일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功效)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所欲)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17주일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제18주일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인간이고
참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人性)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神性)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간하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代言者)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肢體)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19주일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肢體)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聖化)에 관하여

제20주일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제21주일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肢體)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제22주일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제23주일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줄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24주일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제25주일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恩德)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施行)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標)와 인(印)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제26주일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外的)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肢體)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딤후 3:5; 행 22:16).

제27주일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神的) 약속과 표로써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찬에 관하여

제28주일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功效)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肢體)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제29주일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役事)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제30주일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 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外飾)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31주일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公的)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外飾)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治理會)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귄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제32주일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救贖)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덕(恩德)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써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제33주일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관하여

제34주일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출 20:2-17; 신 5:6-21).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뉘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뉘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聖人)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35주일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36주일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제37주일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聖人)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38주일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公的)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제39주일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40주일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41주일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不眞)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殿)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제42주일

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되,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제43주일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中傷)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評判)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제44주일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제45주일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大蓋)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46주일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天上)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47주일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제48주일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이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홍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제49주일

124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제50주일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 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51주일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罪過)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52주일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 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불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대개(大蓋)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